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HGIT Newsletter

2017년 12월 창간/15호

<http://tourism.hanyang.ac.kr/>

2017년 12월 22일 #1

글의 순서

1. 2017 국관원 후기 해외답사 스케치 - 일본 북큐슈
2. 교수님과의 대화 - 김남조 교수님
3. Let's go Pyeongchang2018! 평창대회 주요 소식 돋보기
4. 2017년 관광 트렌드 - YOLO가 끼친 영향
5. 국관원이 추천하는 국내 여행지 - 전라북도 전주
6. KTX 승무원이 알려주는 열차의 비밀 그리고 역전 맛집
7. 복합리조트(IR) 마케팅 사례 - 파라다이스 시티
8. 러시아 지방 축제 소개 - 블라디보스토크 '호랑이의 날'
9. 2017년 하반기 국관원 활동 모음집
10. 국관원의 오피니언 '태풍 불라벤' ☺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

1. 2017 국관원 후기 해외답사 스케치 - 일본 북큐슈

글/구성 35기 이우석

안녕하세요. 35기 이우석입니다. 또다시 한 학기가 빠르게 지나가고 세 번째 기사를 쓰고 있는 저를 발견하니,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이번 2017학년도 2학기 초였던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원우들과 함께 하반기 해외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한국인들에게 항상 사랑받고 있는 가깝고도 먼 곳 '일본 북큐슈' 일대를 답사하였는데요. 북큐슈 중에서도 후쿠오카, 벳푸, 유후인, 츠에타테를 중심으로 다녀왔습니다. 지난 9월에 발간한 저희 뉴스레터 제14호 가을호에서 답사 일정을 자세히 소개하였던 것을 참고하시면서, 아래 해외답사 사진들을 감상하시죠^^



9월 23일 인천공항에서 출발 직전 단체 사진



벳푸 온천에서 족욕 체험



후쿠오카 하카타 아사이공장 견학



츠에타테 히젠야 노천온천을 마치고 산책

2. 교수님과의 대화 - 김남조 교수님

글/구성 35기 김하영

안녕하세요. 지난학기 국관원 원우님들 알찬 학기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학기 ‘관광지리연구’ 과목을 강의하신 김남조 교수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남조 교수님은 올해 여름 제24대 한국관광학회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현재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사회과학대학 관광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시간 내어 인터뷰 해주신 김남조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리며 인터뷰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수님, 한국관광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예롭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관광학회의 감사, 이사, 편집위원, 국제협력위원장, 학술출판위원장, 편집위원장, 수석 부회장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학회 회장의 자리는 대외적으로 가장 명예롭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만큼 어렵고 무거운 자리입니다. 한국관광학회는 1972년 9월에 창립되었습니다. 45

년이 지난 지금 학회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관광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관광 관련 학회는 한국관광학회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학회를 모학회라고 지칭합니다. 1977년 6월 창간한 『관광학연구』는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A급 학술지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2017년부터는 ‘우수등재학술지’라는 최고의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한국관광학회는 2000년부터 영문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Sciences(IJTS)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학회는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국제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관광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요되는 예산도 상당합니다. 이처럼 학회의 회장을 2년 동안 맡아 운영한다는 것은 영예롭기도 하지만 그만큼 큰 부담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 앞으로 학회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주요 사업은 어떠한지요?

올해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우수등재학술지’에 『관광학연구』가 관광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학회 회원 모든 분들은 학술지의 질을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관광학연구』의 질을 더욱 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들일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영문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Sciences(IJTS)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IJTS는 먼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이어서 해외우수학술지로 인정받는 SCOPUS에도 등재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학술논문발표대회와 관광(정책)포럼을 국내와 국외로 분리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내학자와 국외학자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진행되다보니 국내학자와 국외학자의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명목상의 논문발표대회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2018년 7월 초에 진행되는 학술논문발표대회는 먼저 이들은 국외학자가 발표하고 그 다음 이들은 국내학자가 발표하는 학술논문발표대회로 진행됩니다. 즉, 국제적인 교류를 더욱 강화시켰다고 봐도 됩니다. 학회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학회조직을 더욱 시스템적으로 가동시킬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기 동안에 학회의 조직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일이 아주 필요한 일로 다가왔습니다. 학회행사와 관련된 운영지침, 각 위원회의 자율화와 활동 강화, 기부금제도의 활성화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을 담아 저는 한국관광학회의 비전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관광학(K-Tourism)의 전당’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광학은 이제 세계적인 트렌트에 맞춰 좀 더 적극적으로 성

장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학문적 토양을 반영하는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K는 Korea, 대한민국 관광학의 가치와 정체성을 대표하는 한국관광학회, T는 Tradition, 모학회로서 관광학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학회, O는 Opportunity, 모든 연구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학회, U는 United Dreams, 산학관 협력을 통해 꿈을 실현하는 학회, R은 Re-creation, 학제간 융합을 통해 관광학을 재창조하는 학회, I는 Initiative, 대한민국 관광학계를 주도하는 한국관광학회, S는 System, 학회 조직의 체계화를 통해 사회적 위상을 강화시키는 학회, M은 Methodology, 관광학의 이론과 연구방법론을 더욱 발전시키는 학회입니다.

※ 관광업계에 있는 원우들이 학계와 업계를 연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회에는 산관협력위원회와 특별회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두 위원회는 특히 관광산업분야의 현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현재 특별회원위원회는 각 도별로 지역특별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별도로 호텔외식분야, 관광여가자원개발분야, 마이스카지노분야, 여행항공정보산업분야, 문화관광정책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500여 명이 특별위원으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학회는 기존학자들과 특별회원과의 유기적이고 끈끈한 협력연구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전주에서 개최된 ‘2017 전주관광 MICE 포럼’이 단적으로 관광학계와 관광산업계의 교류와 협력을 자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학생들도 한국관광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특별회원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한국관광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논문발표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관광포럼 세미나에도 참가하여 본인의 논문이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대학의 교수들이나 대학원생, 여러 지역이나 산업체에 근무하는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은 연구자의 길을 시작하는 곳이므로 적극적으로 타 연구자들과 전문가들과 교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회 회원으로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조언합니다.

※ 마지막으로 국관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관광학은 실용학문이고 응용사회과학입니다. 현대사회는 관광산업과 같은 서비스산업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국제관광대학원 학생들은 이미 관광산업분야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광산업분야의 실무적인 경험을 이용하여 관광이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고 본인의 경험을 이론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관광학회는 회원 모두의 학회입니다. 대학원 시절에 기왕이면 학회 회원으로 가입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관광학의 매력에 빠져보기를 주문합니다. 관광학은 융복합 학문이며 이 시대의 학문이고 미래의 학문입니다. 학계-관계-산업계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대학원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입학동기 간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선배와 후배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관광학을 전공하는 국내외의 연구자들 간 정보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해서 그 어려움을 관광학을 연구해서 타파해봅시다.

3. Let's go Pyeongchang2018! 평창대회 주요 소식 돋보기

대회까지 40여 일 남은 지금... 대회 준비 이상무!

글/구성 33기 심요섭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어느덧 4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부터 KTX 경강선 개통으로, 서울에서 강릉까지 1시간대로 빠르게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얼마 남지 않은 상황만큼 평창대회 준비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평창대회 관련 주요 소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 대회 성화봉송 전국 곳곳 진행



“Let Everyone Shine(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

지난 11월 1일,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화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성화봉송은 인천을 시작으로 총 101일 간, 2018km 구간을 7,500명의 주자들이 성화를 순조롭게 봉송하고 있습니다. 성화봉송 주자는 지난 상반기 삼성, KT, 코카콜라를 통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성화봉송 주자 지원 공모를 통해 선발하였는데요. 이들과 함께 거북선(통영), 해상케이블카(여수), 로봇(대전), 증기기관차(국성), 해양 레일바이크(삼척), 헬기(신안)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를 지나 앞으로 경상북도, 대구, 경기도, 인천, 서울, 강원도로 성화가 지날 예정인데요. 성화봉송을 진행하는 주요 도시마다 저녁에 풍성한 지역행사도 열릴 예정이니 한번 보러가는 것도 재미있겠죠? 전국을 누비며 평화올림픽과 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성화. 혹시 성화봉송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봉송 주자에게 응원의 박수와 함성 꼭 부탁드립니다!

2. 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 & 유니폼 공개식 개최

◎ Passion Crew란?

- 평창대회 슬로건 'Passion Connected'와 'Crew'의 합성어로, 조직위원회 정규직원과 단기인력, 자원봉사, 용역인력 등 총 87,000여 명의 대회운영인력을 포괄하는 명칭.

지난 11월 6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자원봉사자 발대식과 Passion Crew 유니폼 공개가 있었습니다. 약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 분들이 참석을 하였는데요. 이 자리에는 조직위원회 이희범 위원장을 비롯한 조직위 관계자, IOC 관계자,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제2차관, 심재국 평창군수, 개그맨 김병만, 걸그룹 걸스데이 등이 함께 했습니다. 이희범 위원장은 “자원봉사자는 대회의 얼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자원봉사 Passion Crew들에게 여러 당부 인사를 했습니다. 한편, 이날 Passion Crew 대장인 개그맨 김병만 씨가 자원봉사자 대표 8명과 함께 “불타는 열정으로 현장에 뜨거운 활력을, 빛나는 미소로 모든 사람에게 환한 감동을, 불굴의 올림픽 정신으로 완벽한 자원봉사 구현!”을 주요 내용으로 선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발대식 후반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Passion Crew 유니폼' 공개였는데요. 조직위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패션모델로 선발하여 유니폼 8종(스키재킷, 미들러재킷, 티셔츠, 스키펠츠, 신발, 비니, 장갑, 배낭)을 소개하였습니다. 노스페이스가 제작한 유니폼은 붉은 색 계통으로 통일감을 주었는데요. 얇은 것 같지만 비교적 두껍고 따뜻하다고 하니 1월부터 3월까지 겨울나기에 안성맞춤이겠지요?



지난 11월 29일부로 기본교육을 성실히 받은 약 20,800명에 대한 올림픽대회, 패럴림픽대회 자원봉사자 직무배정을 완료하였는데요. 앞으로 실제 배치 이전에 현장 교육이 남아있지만,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라는 자세로 활약하는 진정한 Passion Crew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3.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협력 확대



“평화, 문화, 환경, 경제, ICT” 이번 평창대회의 핵심목표 중 ‘평화올림픽’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는 올림픽을 통한 남북 간 화해 협력 및 평화증진, 한반도 긴장 감소, 북한 대표팀 참가 독려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목표인데요. 2018 평창대회 조직위원회와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3개 기관이 지난 11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평화올림픽 실현을 위해 서로 힘을 합친 것인데요. 전 국민에게 평화올림픽의 의미를 홍보하고 북한의 올림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전개할 예정입니다.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대회가 열리는 만큼, 평화올림픽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국관원 원우 분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올림픽에 대한 성원이 평화올림픽 실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창, 평화!” 함께 외쳐봅시다!

4. 2017년 관광 트렌드 - YOLO가 끼친 영향

글/구성 36기 주혜림

안녕하십니까? 36기 주혜림입니다. 관광호텔경영을 전공으로 대학원에 입학한 하니 현재의 관광 흐름과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높아졌습니다. 2017년을 마무리 하면서 올해 관광업계의 흐름을 한 번 되짚어보고 곧 다가올 2018년의 새로운 변화와 흐름에 한 발 앞서 대비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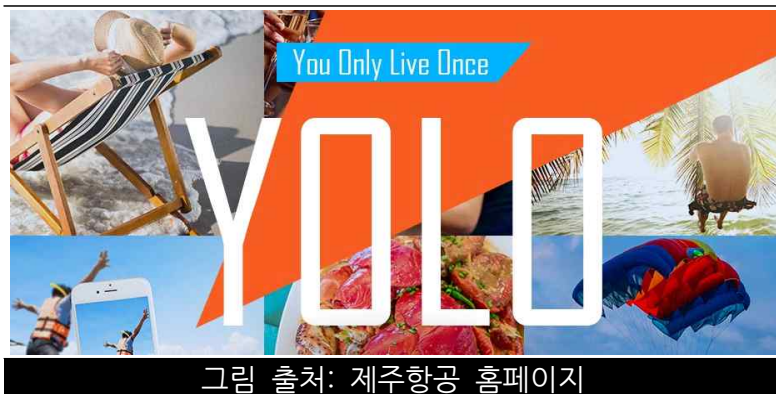


그림 출처: 제주항공 홈페이지

2017년의 대한민국은 옴로 열풍으로 뜨거웠습니다. 옴로(YOLO)라는 말은 '인생은 한 번뿐이다'를 뜻하는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딴 용어로, 미래 또는 남이 아니라 '현재와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이렇듯 현재를 즐기는 옴로 라이프가 확산되면서 관광객들의 여행 패턴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옴로 소비의 대표적인 유형이 '해외여행'으로 나타나면서 해외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관광의 다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계획을 짜고 휴가를 내는 사람들보다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즉흥적으로 여행하는 '즉행족'이 늘었고, 개인의 삶의 만족이 중요해지면서 혼자 여행하는 '혼행족'도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특별한 경험과 현재 자신의 행복을 위한 소비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경험 소비'도 옴로족의 큰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요즘 옴로의 소비지향적인 측면이 크게 부각되고 너무 많은 분야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옴로에 대한 염증과 쓴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관광 업계는 어떤 시사점과 대안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 즉행족

'즉행'은 즉흥적으로 떠나는 여행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즉행족은 출발일이 임박한 특가항공권이나 특가여행상품을 발견하면 당장이라도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여행객을 말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여행 욕구가 생겼을 때 바로 여행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러한 즉행족들은 타임커머스 상품과 특가 프로모션에 즉각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일본, 중국, 동남아 등지로 해외 근거리 여행을 떠나는 즉행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혼행족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밥, 혼술 뿐 아니라 여행도 혼자 가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인 여행이 주를 이루는 자유여행 외에도 1인 패키지 여행상품도 출시되었고, 싱글 차지 때문에 꺼렸던 1인 호텔 숙박도 1인 맞춤형 패키지 출시를 통해 혼행족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 무엇보다 치안이 좋은 안전한 여행지 선정과 혼자서도 즐길 거리가 잘 갖추어진 지역을 추천합니다.

◆ 경험 소비

1%의 특별한 경험을 사는 '경험 소비'도 올해 관광 업계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곳이 아닌, 자신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위해 남극 여행을 가거나 프라이빗 아일랜드에서 휴양을 즐기는 등의 여행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색적인 관광지에서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여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듯합니다.

옴로(YOLO)족의 주 소비 품목 평가



(Base: 전체, N=1,000, 주요 응답값 제시, 단위: 중복 %)

옴로족의 주 소비 품목 평가 (표: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현재와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한 옴로족에게는 여행을 가고자 마음먹었을 때 바로 떠날 수 있는 국내의 하루 여행이나 반나절 여행 상품의 개발이 요구됩니다. 굳이 해외로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멋진 풍경을 즐기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경험할 즐길 거리는 많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통한 숨은 관광지 개발과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상품을 통해 국내 관광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옴로 라이프의 실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점이나 카페의 1인용 좌석을 늘리거나 교통 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소비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옴로족의 니즈에 맞춘 세분화된 여행 상품이 필요하겠습니다.

물질적인 소비보다 경험에 가치를 두고 현재를 즐기자 라는 의미에서의 옴로를 실천하는 것은, 한 번 뿐인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듯합니다.

요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라는 방송 프로그램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때로는 익숙함을 넘어선 지겨움으로 다가온다면, 이방인의 낯선 시선으로 거리와 풍경을 보고 우리의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면 하루하루의 삶이 여행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여기를 소중히 여기고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자세로 2018년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5. 국관인이 추천하는 국내 여행지 - 전라북도 전주

글/구성 36기 정유진

안녕하세요. 36기 정유진입니다. 추운 겨울 집에서 웅크려만 계시진 않나요? 저는 항상 친구들과 함께 1년에 한번 여행 다녀올 계획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이거나,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을 중심으로 여행지를 고민하고 선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곳저곳 여행지를 찾던 중에 인스타그램에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한옥마을 구경과 식도락 여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라북도 전주로 향하였습니다!

한국 전통의 맛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한옥마을'



출처: 인스타그램

전주하면 다들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전주 한옥마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주 한옥마을은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역사의 숨결이 곳곳에 녹아있는 도시 속 한옥마을입니다. 특히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적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700여 채의 한옥과 함께 하는 풍부한 전통 문화체험은 전주의 멋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전주를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전경

전주 한옥마을은 전주시 완산구 교동과 풍남동 일대를 말하는데요. '전주한옥마을'이란 이름이 붙은 건 2002년이라고 합니다. 당시 관광객은 연 30만 명에 불과했는데 최근에는 약 20배 늘어난 592만 명이라고 하니 정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죠? 전주 한옥마을 방문객을 포함한 전주시 방문 관광객은 약 789만 명이라고 하니 날이 갈수록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각종 관광 관련 상을 휩쓸며 필수 관광코스 자리매김했고 2010년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여하는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 같은 해 비영리 단체인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도 한옥마을의 맛을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전주한옥마을은 2012년 프랑스의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되며 최고 평점인 별 세 개를 받았습니다.

전주시와 전주한옥마을이 몇 년 사이에 손꼽히는 관광명소로 거듭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주에서 나고 자란 이병천 여행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전주 여행 붐을 이끈 배경에 '내일로' 기차여행 열풍과 SNS의 '인증샷 문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비교적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여행지이고, SNS를 통해 전주 여행 사진이 퍼지며 입소문 효과가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요?

전주 한옥마을 대표 맛집 소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듯이, 여행에서는 무엇보다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죠? 이번 전주 한옥마을 방문을 통해 알게 된 맛집을 국관원 원우 분들께도 공유합니다!

☀ 화심순두부 (순두부 찌개 7,000원)



부드러운 식감의 순두부! 겨울철 뜨거운 국물로 몸을 녹여볼까요~ 매일 9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업하며, 명절에는 휴무합니다.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39 / ☎ 063-231-6500

☀ 원조 황소곱창 본점 (곱창 1인분 14,000원)



전주 중앙시장에 위치한 소문난 곱창 맛집.

평일 오후 2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영업하며 연중무휴합니다!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여울1길 57 / ☎ 063-277-4758

☀ 조점레남문피순대 (순대국밥 7,000원)



진한 국물이 일품인 피순대 국밥. 남부시장에 가시면 꼭 드셔보세요!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동3가 2-198 / ☎ 063-232-5006

6. KTX 승무원이 알려주는 열차의 비밀, 그리고 역전 맛집 공개!

글/구성 36기 김희재

안녕하세요. 36기 김희재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번 쯤은 KTX를 여행이나 출장 목적으로 탑승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KTX와 관련된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고객들은 알지 못하는 열차 타는 비법과 KTX 승무원들이 꼭 방문하는 KTX 기차역 근처 맛집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여행 때 한번 활용해보세요~!

1. 좌석이 매진인 경우 도움 되는 TIP

명절이나 주말에 승차권을 예매하고 싶는데 매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다들 그냥 포기하고 다른 교통수단 이용하시죠?

목적지가 서울-부산 구간인 경우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에 접속해도 잔여 좌석이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때, 바로 내가 가고자 하는 정차역이 아닌 서울-광명 혹은 서울-천안아산과 같이 단구간이라도 좌석을 예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매 후 해당 열차에 승차하여 승무원이 검표할 때 “승차권 연장 좀 해주세요.”라고 한마디만 하면 기존 운임으로 열차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지정한 좌석이 없는 일정의 입석이기 때문에, 취소 좌석에 앉거나 복도에 2개씩 비치되어 있는 간이석에 앉아 가시면 됩니다. 승무원에게 다정한 인사 한마디 해준다면 빈 좌석도 알아봐주는 분들도 많답니다^^

2. KTX 주요 정차역 맛집 소개

KTX 정차역이 상당히 많지만, 승무원들이 자주 방문하는 맛집 위주로 엄선하여 소개합니다. 집밥 같은 음식이나 간식거리 위주의 맛집들을 소개해봅니다~

☀ 대전역 - 성심당 (튀김소보로, 부추빵: 개당 1,500원 선)



대전역에서 KTX 승객들이 튀김소보로를 갖고 타면 순회도중 열차 안에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풍겨 배가 고프는 것은 ‘안 비밀!’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 ☎ 042-220-4138

☀ 광주송정역 - 또아식빵 (초코·블루베리 식빵: 2,900원 선)



초코·블루베리 식빵이 유명하고 2,900원 선입니다. 빵이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1인당 2개씩 밖에 사지 못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8번길 11 / ☎ 062-955-6945

☀ 부산역 - 본전 돼지 국밥 (6,000원)



돼지국밥 6,000원의 행복입니다. 식사시간 아닐 때도 항상 줄이 있습니다. 혼자 온 사람끼리 합석시켜도 이해하면서 먹는 분위기랍니다.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14번길 3-8 / ☎ 051-441-2946

☀ 서대전역 - 웅심이 메밀 칼국수 (6,500원)



가격은 6,500원. 추운 겨울날 따뜻한 한 그릇하기 좋은 곳입니다.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로 54 / ☎ 042-536-9982

☀ 목포역 - 코롬방제과 (크림치즈바게트 5,000원)



크림치즈를 아낌없이 넣어 만듭니다.

☎ 전라남도 목포시 노적봉길 9 / ☎ 061-243-2161

☀ 여수엑스포역 - 덕충식당 (백반 6,000원)



간장, 양념게장이 기본 반찬이며 리필이 가능한 집밥의 최강자입니다!

☎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남3길 9 / ☎ 061-664-7838

7. 복합리조트(IR) 마케팅 사례 - 파라다이스시티

글/구성 34기 왕홍소

지난 2017년 4월 인천 영종도에 오픈한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는 그랜드오픈 직후 불거진 사드 이슈로 매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중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시장 구조상 불가피한 타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라다이스시티는 여러 자구책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복합리조트의 주요 자구책과 마케팅 방안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재한 중국유학생 마케팅 스쿨 운영



제2기 중국인 유학생 마케팅 스쿨 발대식

개장 초기부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파라다이스시티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과 협력하는 마케팅 방안’을 시도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1기 중국 유학생 마케팅 스쿨을 운영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지난 9월에 제2기 마케팅 스쿨을 이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기 마케팅 스쿨은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가 중국 유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이론 교육과 실무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 과정을 통해 유학생들이 관광 마케팅 실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9월2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3개월 간 온라인 마케팅, 관광 마케팅, 프레젠테이션 등 분야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호텔·관광 마케팅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운영기간 동안 영상 프로덕션과의 협업을 통해 파라다이스시티 홍보 영상 제작에 참가하여 영상 홍보마케팅 전략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파라다이스시티 전경 (출처: 파라다이스시티 홈페이지)

파라다이스시티 통합커뮤니케이션 계정현 팀장은 “파라다이스시티를 통해 관광 마케팅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마케터로서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의존도 완화를 과제로 설정하여 비(非)카지노 시설 강화를 통해 수익을 다각화하는 목표로 올 상반기 파라다이스시티는 2차 시설 콘텐츠 보강을 위해 4,2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였습니다. 파라다이스시티 측은 동북아 최초의 아트테인먼트 복합 리조트로서 행사에 걸 맞는 시설 경쟁력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 Asia Artist Awards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파라다이스시티는 올해 아시아 최대 규모 EDM 음악축제인 ‘빅시티비츠 월드클럽돔’을 비롯한 대형 행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후 이어, 지난 15일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열리는 국내 최초 배우·가수 통합 시상식 ‘2017 Asia Artist Awards’ 공식 호텔로 지정돼 파트너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시상식에는 엑소, 수지 등 국내 톱스타들은 물론 중국의 인기 걸그룹 SNH48 등 국내외 스타들이 대거 참여하였습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인천국제공항 근처에 위치한 뛰어난 접근성을 기반으로 해외 아티스트들에게 편안한 숙박과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파라다이스 시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파라다이스시티 관계자는 “올해 성공적으로 진행한 행사와 리조트 내 보유한 다양한 아트웍을 기반으로 아트테인먼트 명소로서 인정받아 아시아의 별들이 모인 초대형 행사에 공식호텔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파라다이스시티는 중국과의 사드 갈등 완화로 매출 회복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홍보 효과도 기대되는 바입니다. 올림픽 관련 행사 유치를 위해 현재 인천광역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플라자(쇼핑), 부티크 호텔, 아트 갤러리, 스파, 클럽 등 2차 개장을 통해 한류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류의 종착지(K-Style Destination)로서의 완성된 복합리조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8. 러시아 지방 축제 소개 -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축제 '호랑이의 날'

글/구성 34기 Elena Kim

안녕하십니까? 34기 김엘레나입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국제 호랑이의 날(International Tiger Day)을 제정하여 매년 7월 29일에 호랑이 멸종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IUCN은 Red List(적색목록)에 등록된 호랑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호랑이 보호를 위해 '호랑이의 날' 축제를 만드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와 극동 연해주, 중국 북동부 및 한반도 북부 지역에 분포하는 아무르 호랑이는 '백두산 호랑이'로도 알려져 있으며, 연해주와 하바롭스크주 등에 약 450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도시 문장

블라디보스토크는 연해주의 행정 중심지이자 러시아 극동 지방의 최대도시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러시아 관광도시이자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거점인 군사도시이기도 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도시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호랑이가 많이 서식하였던 곳이 바로 연해주인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0년 블라디보스토크에 호랑이의 날이라는 새로운 축제·기념일이 생겼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이자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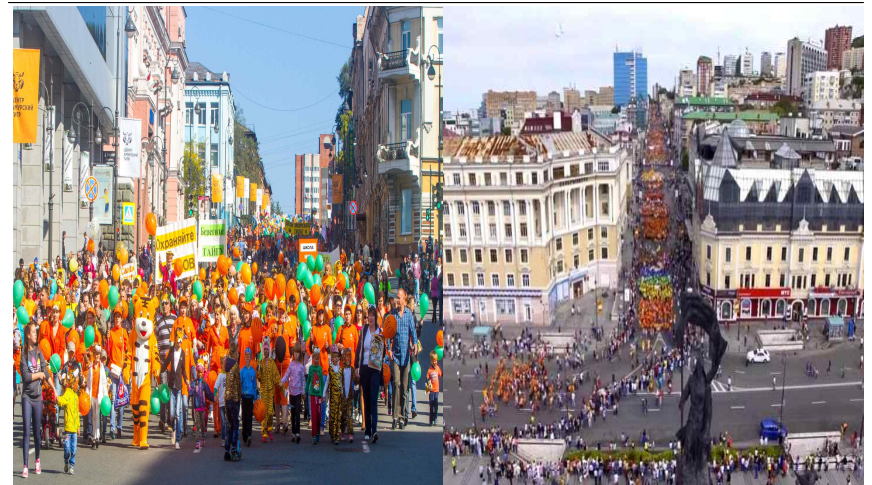
냥꾼인 블라디미르 트로이닌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는데요. 트로이닌은 모든 러시아인이 아무르 호랑이 보호의 중요성 상기시켜 주기 위해 이 축제를 고안해냈습니다. 첫 축제는 고작 몇 십 명 정도 되는 환경 보호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자연과의 하모니 속에서 살자!'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마다 참가자들이 몇 배로 늘어난 현재는 공식적인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축제의 성장은 2008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뿐만 아니라 연해주 전체의 기념일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매년 9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열리는 이 축제는 올해로 18회를 맞이하고 1만8천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날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서 호랑이 퍼레이드, 콘서트, 자연보호단체 설명회가 열립니다.

호랑이의 날은 2014년 15회부터 대규모 축제로 성장하였는데요. 이때 시내 오페라 하우스 근처에 새로운 호랑이 동상도 세워졌습니다. 호랑이는 블라디보스토크 시기와 문장에 그려져 있으며 도시를 상징하는 동물인데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곳곳에 호랑이 동상과 돌이나 다른 재료로 만든 호랑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호랑이 동상은 오케안(Okean/OKEAH) 영관 주차장 옆에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동상은 인근 호랑이의 거리(Tigrovaya St. 18a)에도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 곳곳에 위치한 호랑이 동상

이외 2013년 9월 해안산책로에 호랑이 새끼 2마리를 형상화한 동상이 생겼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호랑이 발자국 13개를 그려놓고 발자국마다 밑에 호랑이가 서식하는 국가를 러시아어 및 영어로 표기하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서 펼쳐지는 카니발 행진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호랑이의 날 축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축제 프로그램 중 카니발 행진이 주요한 행사인데요. 카니발 행진은 오전에 도시 주요지역을 관통하는 2개의 거리에서 진행됩니다.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 대부분 호랑이 분장을 하거나, 호랑이를 나타내는 복장을 하고 참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의 학교에서도 '호랑이를 보호해요.'라는 슬로건을 들고 행진에 참여합니다.

얼굴 분장뿐 아니라 복장부터 머리 장식까지 자발적으로 호랑이를 기념하는 사람들을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라디보스토크를 대표하는 두 거리의 행진이 끝난 후, 오후 1시부터는 두 거리가 맞닿아 있는 혁명광장에서 콘서트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시민 참여형 노래 경연대회, 공연, 스포츠 경기, 각종 콘서트가 열립니다.

본격적인 음악 콘서트는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공연 당일 저녁 8시에 러시아 유명한 록 그룹 <비 투>의 공연이 펼쳐져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호랑이의 날' 축제에서 공연한 록 그룹 <비 투>

축제가 열리는 매년 9월은 맑고 청명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인데요. 내년 9월, 아무르 호랑이를 만나고 축제를 즐기러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면 어떨까요~

9. 2017년 하반기 국관원 활동 모음집

글/구성 34기 박경현

안녕하십니까? 34기 박경현입니다. 선선한 가을에 학기를 시작해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 왔습니다. 이번 학기를 다시 한 번 돌이켜 보며 저는 이번 학기 동안 목표 한 것을 얼마나 이루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할 때 목표했던 것들 중 하나라도 이룬 학기가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번 한 학기 동안 있었던 일을 주제로 저의 여섯 번째 뉴스레터를 작성하면서 지나간 추억에 아쉬워해보기도 하고, 앞으로 다가올 겨울 방학과 새로운 2018년도를 계획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2학기는 선배님들의 졸업식으로 시작하여 36기 입학식, 그리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봉사활동 동아리와 와인동아리에 뮤지컬동아리가 더해져 더욱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평소 직장생활과 학업활동에 지친 국제관광대학원 원우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2017년 후기 해외답사로 일본 규슈지역을 방문했는데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온천지역인 유후인과 벳부 지역을 관람하며 일본문화에 대해 배우고, 원우 간의 더욱 끈끈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가올 2018년도 새 학기에도 국제관광대학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시죠? 올해 하반기 국관원 활동 모음집을 보시면서, 며칠 남지 않은 2017년 마무리 잘 하여 뜻깊은 겨울 방학을 계획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추운 날 건강 조심하십시오! ^^



8월 18일 후기 학위수여식



9월 5일 36기 신입생 후기 입학식



뮤지컬 동아리 - 레베카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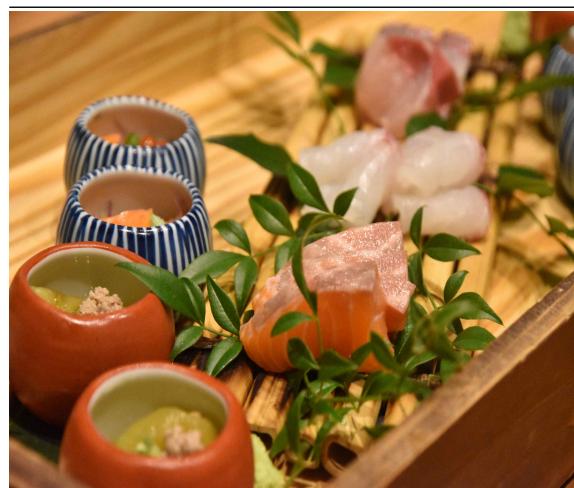
와인 동아리 - 스페인 와인 & 하몽 체험



봉사활동 동아리 - 연탄배달 봉사



해외 답사 - 다자이후 텐만구



해외 답사 - 료칸 석식 메뉴



해외 답사 - 유후인 기차길

10. 국관원의 오피니언 - ‘태풍 볼라벤: 그 속에 갇힌 승무원들’

글/구성 36기 박창진

편집장 주: 이번 뉴스레터부터 ‘국관원의 오피니언’을 신설합니다. 편집위원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제시하며 원우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지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래의 글을 보시면,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창진 원우의 경험담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2012년 8월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은 애초 예상 진로와는 달리, 인천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 서쪽 해역을 낮 12시~13시 사이에 통과한다는 예보로 인해 항공기 출발이 오전 11시 이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통상 승무원들은 항공기 출발 약 4시간 전 즈음에 회사에 출근해 비행 준비를 시작해야 하니, 승무원들은 더 힘든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무슨 비행 준비가 그렇게 필요하냐고 반문할 지도 모르겠으나, 한 국가에서 한 국가로 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준비에는 이 시간도 모자랄 때도 있을 정도로 승무원들은 출발 전부터 많은 일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시 태풍을 피하기 위해 오전 9시20분에 승객의 항공기 탑승이 시작되었으나, 출발 시각인 9시50분까지 승객 두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 기다리는 문제로, 10시25분에 최종적으로 항공기 문을 닫았는데요. 항공기 문을 닫는다는 것은 비행 준비가 완전 완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기장이 기상 악화로 출발을 지연하라는 관제 통제 센터의 연락을 받고 정확한 대기 시간을 알 수 없다고 전합니다. 참고로, 항공기는 공항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공항 혼잡도, 기후 등을 고려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이후 11시50분까지 항공기는 출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항공기가 강풍에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느껴 질 정도였죠. 아침 일찍 집에서 출발한 탓인지 허기를 호소하는 승객이 다수였고요. 서서히 강한 어조로 불만을 토로하는 승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무장의 판단이 중요한데, 일단 비행 중 서비스할 스낵들과 음료를 먼저 서비스 하라 지시할 수 있으나, 미리 사용하고 나면 비행 중에 서비스할 스낵이 없어지는 것이니 이 또한 어려운 결정입니다.

12시08분. 이코노미 좌석에 앉아 있던 4명의 가족이 태풍 부는 것이 예사롭지 않아, 내리겠다고 합니다. 이에 기장과 상의를 하였습니다. 통제 센터에서는 약 5분 후 이륙이 가능한 상태이니, 승객들을 설득 시켜 보라고 합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이륙 순서가 뒤로 밀리게 되어, 더 지연 될 수 있다며 강조했죠. 저는 두 자녀를 동반한 40대 후반 부부에게 자세히 상황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기어코 내리겠다고 강하게 말하여 지상 통제센터와 협의한 후, 동 승객들은 내렸습니다.

내린 승객들의 짐을 찾는 문제로 15분의 시간이 걸려, 13시50분에 항공기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비행기의 출발 순서가 뒤로 밀려 났고, 태풍은 더 그 위세가 커지고 있어, 기상은 악화 일로에 있었습니다. 우리 순서에 출발한 항공기는 이륙을 하였으나, 우리는 태풍 속에 갇히게 되었죠. 이에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 승객의 불만이 터져나갔고, 결국 식사를 지상에서 가능한 빨리 제공하였습니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근무 시간이 초과 된 조종사들이 내리고 새로운 기장으로 교대하는 문제로 추가 지연이 됩니다. 결국 조종사들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17시28분에 무사히 이륙하였습니다.

마침내 7시간 가까운 지상 대기 시간의 사투와 9시간의 비행이 더해진 후 항공기는 암스테르담 상공에 다다르고, 비행이 종료 되었죠. 이렇게 태풍 볼라벤은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태풍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참으로 원망스러운 하루였습니다.

♥ 국관인의 밤 & 홈커밍데이 특별기금 납부 ♥

☑ 납 부 자 : 32기 문소현(10만원), 32기 박태일(100만원), 34기 강병준(50만원), 34기 김미진(10만원), 34기 김정희(50만원), 34기 김지환(100만원), 35기 원우일동(50만원), 36기 김기학(50만원) (이상 기수 및 가나다순)

- 국관인의 밤 및 홈커밍데이 행사를 위해서 도움을 주신 모든 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여러분이 납부하신 기금은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